

[전라도]



(26) 이중재 前 국회의원 <상>

■ 전라도 역사 이야기

- 익산 왕궁성

“이후락에게 밉보여 67년 7대 총선서 고배”

“1967년 7대 총선에서 실패한 것은 외자도입 비리를 추궁하다가 당시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밉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중재(83) 전 국회의원의 40년 전 회고다.

“6대 국회에 등원, 재무위에서 활동하다가 이후락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관여된 외자도입 비리를 추궁했어요. 당시 외자를 들어올 때 공정환율은 1달러당 200원대였고 시장환율은 1달러에 1천200~1천300원대였습니다. 따라서 200원대의 외자를 배당받으면 앉아서 6배의 이익을 볼 수 있었지요. 이 외자의 배정이 이 실장이 거의 좌지우지했어요. 비리가 생길 밖에요. 그래서 김대중씨와 함께 이런 부정비리를 파헤쳤습니다. 그러다 선거가 닥차자 이 실장이 ‘이중재 만큼은 낙선시킬 것이다’며 당시 보성이 고향이고 외무고시 출신인 양달승 청와대 비서에게 출마를 종용했어요. 무조건 당선 시켜줄 테니 나서기만 하라는 식이었어요.”

당시는 관권선거가 일반적으로 벌어지던 때였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느낀 이 전 의원은 당시 신민당 대변인으로서 친한 기자들에게 “보성에서 각종 부정선거가 판을 칠 것이다”며 취재를 부탁했다. 그래서 22명의 중앙지 기자들이

朴대통령 외자도입비리 추궁 빌미

李씨 ‘이중재 낙선시켜라’ 배후 조종



7대 국회 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이중재(앞줄 오른쪽) 전 의원, 그 원쪽 옆으로 당시 정일권 총리, 김학렬 부총리, 최규하 외무장관 등이 앉아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탈출, 도망 다니게 됐지요. 이 내용이 연일 기사화되면서 유권자 사이에선 동침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신문이 선거운동을 해준 격이 됐어요. 때문에 김 변호사가 당선됐지요. 정부는 그를 구속 못 하고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어요.”

이 전 의원은 11대 총선에는 10·26에 따른 정치규제로 출마를 못하자 유준상씨에게 출마를 권유해서 당선시켰다.

그리고 1985년 12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복귀했다. 지역구는 서울 강남갑이었다. 유준상씨의 지역구를 빼앗을 수 없어서 선택한 고육지책이었지만 그는 무난히 당선됐다.

“상당수 언론이 1979년 10·26 이후 동교동계에 입문했다고 하나 저는 85년 12대 총선 이후부터 동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YS 대인관계 좋지만 공부와 거리 멀어

DJ 노력하는 정치인… 이해관계 밟아”

니다. 10·26 이후 저는 어느 계보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망명생활을 하던 김대중씨가 도와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어요. 재무위 활동을 함께한 인연도 있고 다른 사람은 접근도 못 할 때 망명생활을 하던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 저를 고맙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또 당시 김영삼씨 측근들이 당내에서 밭을 하는 것이 보기 싫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양 김씨에 대한 평가도 다른 정치인과 비슷했다. “김영삼씨는 정직적이어서 친밀감 있고 대인관계가 좋지만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면 김대중씨는 머리가 좋으면서도 노력하고 공부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갑고 이해관계에 밟았습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 고경석기자 ksogo@kwangju.co.kr

백제 무왕 말기 조성된 宮城 서동 태생지 마룡지도 있어

익산 시내는 높지였다. 백제 때 모현동 배산 남쪽 소력지현(所力只縣) 터는 만경강 조수(潮水)구간의 ‘갈대 속 마을’이라 뜻으로 ‘습니(습리)’라 했다.

1912년 호남선과 1930년 전라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시가지로 변하고 ‘속터’ 의미를 한자로 옮겨 ‘이리(裡里)’라 불렸다. 1995년 이리시는 익산군과 통합 익산시로 칭했다. 옛 함열, 용안, 여산 땅을 포함한 행정구 4개나 있는 고장이다.

본래 익산 중심지는 금마·왕궁면이었다. 마한국(馬韓國)터로 ‘금마저(金馬渚)’라 했다가 고려 충ে왕 때 익주(益州), 조선 태종 13(1413)년 익산(益山)이 됐다.

익산은 백제 궁터로 주정되는 왕궁성(王宮城)을 비롯하여 외성 역할을 한 오금산성과 미륵성, 저토성, 국립사찰 격인 미륵사지, 왕실 기원사찰인 제석사지 등 삼국시대 도성이나 찾아볼 수 있는 유적이 남아 있다.

시내에서 동쪽으로 720m 도로를 따라 10리 남짓 떨어진 금마면 미륵산(430m) 남녘 미륵사지(사적 150호)에는 국보 11호인 석탑과 당간지주(보물236호)가 있다. 용화산(342m) 남쪽 등성이 왕궁리유적(사적 408호)에는 국보 289호인 5층 석탑이 있다. 두 곳간 거리는 시오리다.



익산시 왕궁성터에 있는 백제양식 5층석탑.

1989년부터 본격 발굴을 시작한 왕궁리터는 백제 무왕(600~641) 말기에 조성된 궁성유적으로 확인됐다. 궁궐답잖은 남북길이 490여m, 동서너비 240여m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돌축대, 대형화장실, 정원, 와적기단 건물지, 공방터, 금·강당지가 드러났다. 왕궁사와 대관사 명문기와를 포함 수부(首府)명 인장와, 연회문와당, 금제 영락(瓔珞), 유리구슬, 뒤처리용 나무막대 등 3천여 점의 유물도 출토됐다.

삼국유사 왕조에 전하는 서동설화는 금마면 서고도리 연동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무왕과 선화비의 무덤으로 전해지는 쌍릉(사적87호)과 서동의 태생지 마룡지(馬龍池)도 남아 있다. 그간 부여 사비도성이 정궁(正宮)이라면 익산 왕궁성은 이궁(離宮)으로 해석하거나, 천도(遷都)와 별도(別都) 설이 끊임없이 제기 됐던 바, 곧 수수께끼가 풀릴 듯하다.

지난 6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정밀발굴에 앞서 개토제를 올렸다. 오는 16일 까지는 보석대축제가 열린다. 1975년 귀금속보석공단이 수출자유지역으로 영등동(보석1로 88번지)에 조성됐고, 1987년부터 내수판매와 더불어 축제가 시작됐다. 현재 2만여평 부지, 100여 업체, 5천여명이 근무하며, 40여국에 7천만 불을 수출하고 있다. 왕궁면 동용리에는 보석박물관도 있다. 1400년 전 왕궁성에서 시작한 금·유리 도가니가 되살아난 것이다.

/김경수(사) 향토문화진흥원장

CBS

■ 위성 412번 ■ 케이블 TV 광주 42, 60번, 나주 60번, 목포 59번, 담양 42번

영·혼을 사로잡는 힘

광주CBS TV

날마다 감탄하세요
은혜와 감동이 쏟아집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해…

광주CBS의 비전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TV강단 매일 오후 3시 5분 ~ 3시 35분

TV강단 매일 새벽 5시 30분 ~ 6시

